

여야,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

한국당, 민생법 처리 제안
 필리버스터 전면 철회
 패트법안 5건 일괄 상정
 오늘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이동성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6일 국회 의정실서 주재로 의정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패스트트랙 및 민생 법안을 6일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고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9일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 본회의 일정을 9일로 조정하기로 내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본회의 일정을 재조정한다면, 국회 본회의 인준이 필요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7~8일)를 앞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이 그 이유로 우선 꼽힌다. 여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은 여야 모두 새해 벽두부터 재충돌을 감수할 만큼 서로 첨예한 입장차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생법안 170여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전행 방해)를 전면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70여건 정도 되는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민생법안부터 처리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면 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당초 오는 오후 6~7시 '조개기 국회'를 여는 꼴 불견을 또 연출하겠다고 했었다"며 "한국

당은 새해 벽두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오늘도 넘기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오는 7~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한 뒤 순리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도 9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여기에는 한국당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은 명시적으

로 4+1 공조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과 한국당이 실제로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에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6시 30분에 의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정세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1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오후 7시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6시 30분에 의원총회를 소집했으나 소속 의원들에게 일정 변경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던 상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공천위원장에 '불출마' 원혜영

공관위원 20인 이내 구성... 광주·전남 송갑석·이개호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을 100일 앞둔 6일 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5선의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공관위 설치 및 원 위원장 임명을 의결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밝혔다. 최고위는 원내 사정에 밝은 데다 이번 총선에 나가지 않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원 의원이 원활한 공천 관리의 책임자라고 판단했다.

공관위원 인선은 원 위원장과 상의해 추

후 결정할 계획이다. 공관위원 구성과 관련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20인 이내로 공관위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외부 인사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내부 인사들만 공관위원이 구성된다면 공천 심사에 있어 당내 이해관계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인사가 절반 정도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제기되고 있다. 또 광주·전남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역 의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광주의 송갑석, 전남의 이개호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경남지사 출신인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갑)을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 차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이 최고위에 잠시 참석해 부산·울산·경남의 여러 지역위원회가 상의한 내용을 보고하고 의견을 줬다"며 "김포에 있는 김 의원을 지역으로 보내 전체적으로 총선을 이끌어가고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최고위는 PK 지역의 요청을 김 의원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는 그 지역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었다"며 "입장을 정하고 나면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총선 라운지

윤영덕 "광주 동남갑, 정치혁신 1번지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6일 "동남갑 지역을 '미래 혁신 산업도시'와 '인간 중심 상생도시'로 탈바꿈시켜 '광주 정치 혁신의 1번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백운광장은 누구나 창업이 가능한 공유시스템을 구축한 '청년 문화·산업 복합도시'로, 진월동은 복합문화센터와 인근 소상공인을 연계한 커뮤니티 상권 개발로 '사회적경제 혁신센터 조성', 그리고 봉선동은 성장단계별 주민평생교육관 설립 등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도시 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대교체는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판갈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천정배 '삶과 정치역정' 출판기념회

대안신당 천정배(광주 서구) 국회의원은 지난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나의 노선 : 천정배의 삶과 정치역정', '광주여, 정신 바짝 차리자! : 천정배의 개혁공동정 부론' 등 두 권의 저서 출판 기념회를 했다.

천 의원은 이날 "광주시민들은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정의로운 시민이며 정치적인 수준이 높은 분들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개혁을 이끌어왔고 김대중 대통령 뿐 아니라 사실상 민주정부 세명의 대통령을 다 광주에서 만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데 광주의 정치적 대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가장 나쁜 형태인 일당 독점으로 인해 아무도 견제하지 않는 정치, 게으르고 오만한 일당 체제가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김성진 "광산 일자리 지킴이 될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진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6일 위니아대우광주사업장을 방문해 김영도 노조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를 만나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 예비후보는 "지역 주요 기업체인 위니아대우의 생산라인 해외 이전 발표로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분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광주 경제와 근로자들의 지속가능한 고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라인의 이전을 막을 수가 없다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갑원 "순천대 의대 유치 등 현안 완수"

더불어민주당 서갑원 순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오는 11일 오후 순천대에서 출판 기념회를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는 각오다.

서 예비후보는 이날 '반보 앞서간 노무현의 반보 뒤에서 정치를 배우다'라는 출판 기념회를 통해 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에피소드, 청와대·국회·대학을 두루 거치며 쌓은 경험을 소개하면서 향후 정치 비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 후보는 순천대 의대 유치,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경전선, 전라선 KTX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지역 현안사업을 완수하겠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한명진 출판기념회... 지역경제 비전 제시

더불어민주당 한명진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오는 11일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선다.

한 예비후보는 '돈이 도는 지역경제 한명진이 답이다'라는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지역민들과의 접촉 기회를 늘리며 지역 발전에 대한 포부를 설명하고 호응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는 보성 출신으로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과 조세총괄정책관 등을 지냈고 방위사업청 차장을 역임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이경자, 5·18 민주묘지 참배

정의당 이경자 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6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심상정 당 대표를 비롯, 당 지도부와 호남권 사도당위원장, 국회의원 출마자 등 100여명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분향하고 민주 열사들의 넋을 기렸다.

이 후보는 "춣불 마음으로 되찾은 국민의 권리, 낡은 국회를 쇄신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당정청 "취약층 일자리사업 조기 시행... 中企 자금지원 90조"

설 명절 민생안전 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위한 90조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히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집행 목표치를 62%로 높이는 등 확대재정 기조를 강화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연금3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새해 첫 고

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명절 불가안정 방안과 체불임금 해소 등 민생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94만5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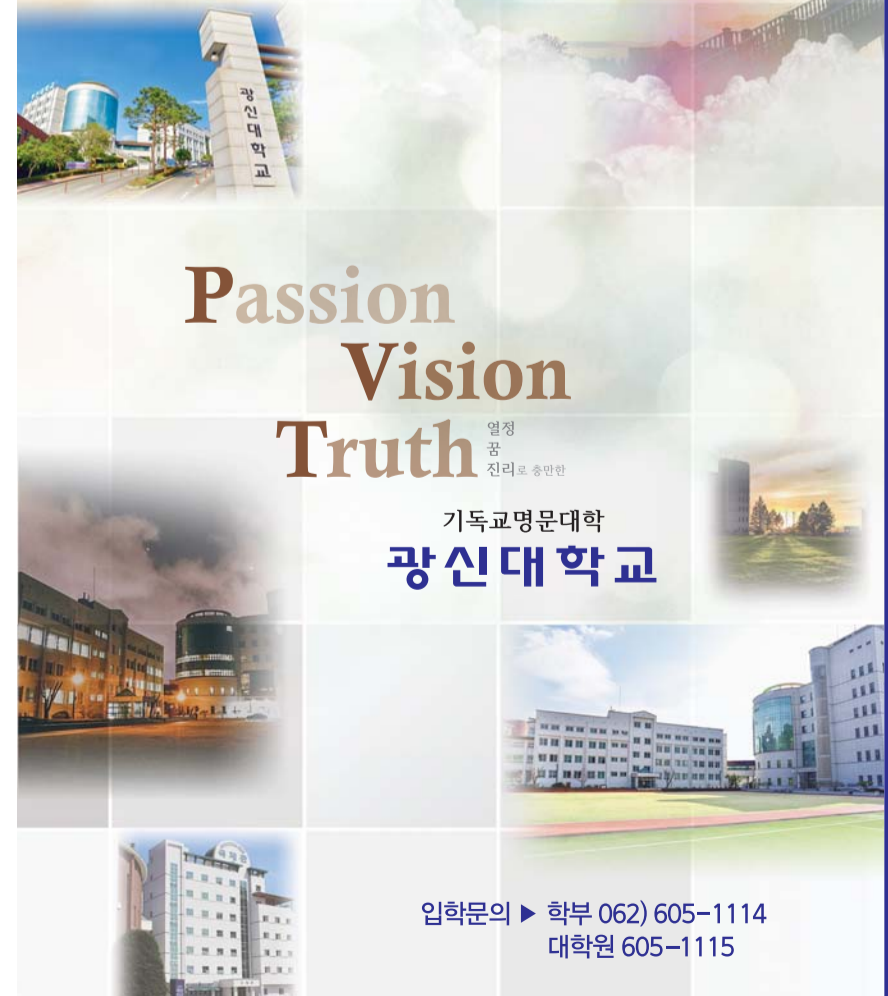
홍 수석대변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만기연장 등을 작년 설보다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2019년 83조원에서 올해 90조원이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정·청은 작년 말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연계해 스텝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하는 등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 ~ 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신학과(Ph.D.)	○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사회복지학과(D.S.W.)	○
		통합예술퓌리치료학과(D.C.S.)	○
		통합예술퓌리치료학과(D.C.S.)	○
		신학과(Th.M.)	○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코칭심리학과(M.Psy.)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0. 1. 20(월) ~ 29(수)
 · 전형일: 2020. 2. 3(월)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 학 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
	유아교육과	○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순수외국인은 본교에서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2,3,4학년 모집학과별 외국인씩 모집한다. 유아교육과 제외
 * 한국어교육학과는 2학년 편입생은 순수외국인에 한해 모집함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0. 1. 6(월) ~ 17(금)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0. 1. 20(월) ~ 29(수)